

## 교회소식 (Announcements)

세광 가족 모두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 교육부 광고  
교육부에서 Canned Food Drive 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17 년 마무리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웃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 2018 단기 선교 안내  
기간 : 2018 년 2 월 19 일 - 23 일 (월 - 금)  
장소 : Honduras, Las Flores (최 문재 선교사)  
사역 : 의료, 심방, 전도, 어린이
- 예결산위원회 오늘 첫 모임입니다. (예배부, 선교부, 교육부, 재정부, 보드 대표)
- 심방 중입니다. 친교실의 심방 일정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년 11 월 안내 : 신 미라 권사

다음 주 기도 : 김 현정 권사 / 시편 70 편

이번 주 친교 : 김 민아 집사 / 윤 정호 집사

다음 주 친교 : 안 정자 권사 / 김 경화 집사

## 예배안내

- 주일예배 : 오후 12 시 본당
- 교사 주일예배 : 오전 10 시 친교실
- 유년/중고등부 : 오후 12 시 1 층 예배실(유년부) / 2 층 예배실(중고등부)
- 금요기도회 : 오후 8 시 본당
- 중고등부 금요성경공부 : 오후 8 시 1 층 예배실
- 토요일 새벽기도 : 오전 6 시 본당
- 구역예배 : 구역별

제 17 권 45 호

2017 년 11 월 05 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

# 뉴욕세광교회

Sekwang Korean Presbyterian Church

담임목사 : 이민영 / 914.874.3606(C) / mylee4x@gmail.com

교육부 전도사 : Edwin Kim

유년부 간사 : 안정자 / 지휘자 : 임대영

70 Bedford Road, Pleasantville, NY 10570  
www.nysekwang.org

2017 년 표어

“하나님의 뜻을 다(The Whole Counsel of God)” (행 20:27)

**주일예배순서**

2017 년 11 월 05 일	인도: 이 민영 목사
* 입례송영 (Opening Hymn)	21 장(통 21 장) 다함께
* 경배와 찬양 (Worship and Praise)	다함께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 찬송 (Hymn)	70 장(통 79 장) "피난처 있으니" 다함께
대표기도(Invocation)	시편(Psalms) 43 편 김 종한 장로
찬양(Choir)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세광 찬양대
봉헌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왕하 25:27-30; 왕상 8:46-53; 신 29:29; 30:1-8 인도자
설교 (Sermon)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민영 목사
* 찬송 (Hymn)	488 장(통 539 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다함께
* 축도 (Benediction)	이 민영 목사

\*일어나 주십시오 (Congregation Standing)

**교회를 위하여: 눈물과 감동이 있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성도 개개인의 구원의 확신과 신앙성장, 성령충만을 위하여**

**새 가족이 쉽고 편하게 적응하도록**

**구역장들 (목회자의 마음, 성령충만, 삶의 균형, 헌신)**

**구역예배를 통해 교제가 풍성해 지도록**

**성경공부, 성경통독, QT, 등을 통해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위해**

**주일학교 담당 사역자들을 위하여**

**선교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순돈호(슬로바키아), 최정희(도미니카),**

**장영호(GP 본부), 이정석(WEC 본부), 김승훈(베트남), 정명섭(모잠비크)**

**CSO(미자립교회 지원사역), 이성주 (필리핀), 최문재 (혼두라스)**

**2017. 10. 29. 주일 설교 요약**

**요나의 표적 (마 12:38-42)**

요나는 아모스, 호세아와 함께 주전 8세기 예로보암 왕이 북왕국을 다스리고 있을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는 남북 왕국이 건재했을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번영을 누리던 시기였습니다. 예로보암 왕때는 영토가 확장되었고 부가 넘쳤으며 종교적으로도 흥왕해 벨엘과 단에 쌓은 제단과 송아지상 외에도 세겜과 브엘세바, 길갈과 같은 성지에 수많은 사람이 순례하며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모스는 이런 백성과 왕에게 보내진 선지자였습니다. 부자와 왕과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고 외쳤습니다. 언약으로 돌아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듣기 싫어했습니다. 원래 고향인 남쪽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빗처럼 임했는데 그 빛에 죄악이 드러나자 빛을 싫어했습니다. 아모스는 역설적으로 여호와의 날, 그가 나타나는 날이 이스라엘에게 빛이 아니라 어둠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암 5:18).

주의 말씀이 빛이요 등불이라면 따라야 능력입니다. 빛이 비친다고 위험이 제거되는 것도, 등불을 든다고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도 아닙니다. 빛은 오히려 위험을 드러냅니다. 거부하지 말고 그 빛을 따라야 합니다. 드러난 위험을 피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싫으면 말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표적도 소용 없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란 표적을 보고도 따르기를 싫어하는 세대입니다. 표지판은 따르는 사람에게 반가운 표시이지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비취줍니다. 정직하게 말씀의 빛 앞에 나와 드러난 죄악을 회개하며 말씀에 드러난 뜻에 순종할 때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아모스와 동시대 인물 요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왕하 14:25-27).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에게는 아모스와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가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로보암 왕은 요나의 긍휼의 메시지는 들어어도 아모스의 경고는 듣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메시지를 받은 니느웨는 회개했습니다. 악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들어야 할 메시지를 니느웨가 듣고, 이스라엘이 해야 할 회개를 니느웨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긍휼을 니느웨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요나의 표적의 의미는 말씀을 듣고 (표적을 보고) 돌이켜 회개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들을 생각 없이 표적만 구하는 악한 세대 앞에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이시고 말씀하십니다. 니느웨도 듣고 긍휼을 받았다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악함을 드러내시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말씀을 들려주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며 긍휼을 베풀기 원하십니다. 과연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요나의 표적입니다.

요나 자신도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물고기에게 먹혔지만 회개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실 자세히 읽어보면 제대로 된 회개도 아니었습니다. 범죄한 자의 정직한 고백이라기 보다는 억울하게 고난 당한 의인의 호소처럼 들립니다. 진정으로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긍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는 예수님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사흘동안 무덤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악의 결과를 직면하시고 다 감당하시고 진정한 회개와 순종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완전한 긍휼을 임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회개와 반성과 순종과 예배와 거룩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 의미가 있고 완성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의 표적입니다. 마치 불순종한 사람처럼,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처럼, 버림 받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오르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살렸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빛이고 말씀이신데, 그 빛과 말씀을 싫어하여 불순종한 세대 앞에 긍휼을 표적으로 서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의 죽은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실한 표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표적 예수님을 바라보고 용감히 죄악에서 돌이킵시다. 하나님의 지혜의 표적 예수를 신뢰하여 끝까지 말씀을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표적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합시다.